

韓國建築傳統樣式繼承을 爲한 提言

韓奎峯 (建設研究所 建築基準科長)

우리의 建築樣式과 傳統으로부터 離脫된 狀態에서 數 10年 동안 建築活動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開發 5 年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여 中進國의 上位圈에 들어서면서 부터 建築技術도 다른 分野에 못지 않게 先進外國의 水準을 바짝 뒤 쫓아 갔으며 近年에 와서 建築投資가 活潑하여짐에 따라 外國의 都市에 遜色이 없는(?) 高層빌딩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雨後竹筍처럼 치솟는 아파트의 建設은 우리民族의 住生活의 傳統樣式을 一新시켜 놓았다.

이렇게 發展되어 오는 過程에서 우리建築의 傳統樣式 繼承에 對하여는 極히 一部 建築家의 關心과 研究속에 묻혀 있었을 뿐 國民과 大部分의 建築家의 머리속에서 사라 아졌었으며 政府에서도 “文化財의 復元事業”에 그쳤을 뿐 韓國建築 傳統樣式의 繼承에 關하여는 無關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表現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大韓建築學會 30周年 紀念行事에서 傳統樣式의 繼承에 關한 問題가 提起되면서 부터 점차로 建築人들의 關心度가 높아지고 이에 關한 研究가 活潑해져 가는 이때에 建設部에서 이에 큰 關心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大韓建築士協會가 “韓國建築의 傳統樣式 繼承發展”을 爲한 懇談會를 主擧하게 되었던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建築界의 發展을 爲하여 禧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韓國建築 傳統樣式의 繼承이란 課題가 提起된 것은 文化財를 後元한다거나 佛寺 碑閣 祠堂과 같은 特定 建築物을 建築하기 爲하여 時急히 解決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것은 아니며 또 單時日內에 解決할 있는 性質의 것도 아니므로 漸次的으로 꾸준히 研究 發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韓國建築 傳統樣式의 繼承을 爲하여는 첫째 : 大學에서 韓國古典建築 그 自体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8. 15以後 西洋의 文物이 洪水처럼 들어오면서 우리의 建築樣式은 미련없이 버려졌다.

이와같은 現狀은 비단 建築에만 局限된것은 아니지만, 韓國建築의 構造가 複雜多端하고 現代의 機能에 適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必要以上 規格材의 使用이나 施工의 어려움 등으로 因한 建築者의 高價, 木材의 品貴, 新建築資材의 開發 및 先進建築技術의 導入 등이 韓國建築樣式을 송두리채 버리게 된 原因이라고 하겠지만 韓國建築樣式의 繼承에 發展이 없었던 것은 앞에서 열거한 理由에서 보다는 “建築教育”에 더 큰 理由가 있다고 본다.

大學의 建築教育은 西洋建築樣式과 技術을 받아 들이는 立場에서 計劃 構造 施工 設備 意匠 등을 中心으로 學生들을 가르쳤으며 建築史까지도 짜여진 時間에 西洋建築史부터 우선 가르치고 時間이 남아야 韓國建築史를 講義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最近에 와서야 韓國建築史를 選科科目으로 大學四學年 教科에 들어 있는 程度이므로 第2次大戰後 世代의 建築人中에는 “貢包” “粒包” “柿頭” “장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 할 것이며 “韓國建築에서 지붕의 曲線美는...; 東大門의 建築年代는.....” “하는 등 史的인 面에서의 常識的인 知識의 테두리를 벗어난 建築人이 그리 흔하지도 않을것임은 明確하다 하겠다.

이렇게 韓國古典建築의 事實 그대로도 잘 모르고 어떻게 韓國建築의 傳統을 繼承 發展시켜 갈 수 있을것인가 傳統의 繼承問題가 現世代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永久히 지속되면서 그 時代의 感覺에 맞게 繼承 發展시켜야 할 大命題이므로 大學에서 韓國建築教育에 對한 革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 韓國古典建築에 關한 資料가 널리 普及되어야 한다.

大學에서 韓國建築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를 研究하는 建築人들이 極少數일뿐만 아니라 文化財의 後元까지도 史家에게의 依存度가 높은 實情이므로 古典建築에 關한 資料는 一部 建築家에게만 普及되거나 死藏되어 있는 資料들이 많은 것으로 본다.

資料들이 冊字로 發刊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살 사람이 없으니 一個人的 所藏資料에서 끝날 수 밖에 없고 大部分의 建築人들은 韓國建築樣式에 依한 建築物의 設計나 施工은 아예 생각지도 않게되는 것이며 “어느분이 아니면 韓國建築은 안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어느분”속에 속하는 建築家들이 建築活動을 할 수 있는 時代가 끝나더라도 이를 繼承하기 爲하여 研究資料들은 널리 普及시켜야 할것이다.

大學에서 韓國建築을 가르치게 된다면 “살 사람이 없다”는 問題는 解決되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政府의 支援, 建築學會나 建築士協會의 事業으로 그 普及은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 定期的인 學術發表會와 講習會를……

文化財 史蹟이나 古家들을 實測 調查하여 學術發表를 하는 모임은 종종 있었으나 이는 學界一部의 關心속에서 끝났을 뿐이고 設計 施工業務의 一線에 從事하고 있는 建築人에게는 無關한것 처럼 아니 度外視 當하는 感마저 있었다고 여겨진다.

어려운 與件下에서 大韓建築學會와 一部大學이 主催가 되어 散發의 이긴하나 調查研究하는 이 事業들은 韓國建築 傳統樣式의 繼承을 爲한 礎石이 될것임은 우리 모두

가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같은 研究事業은 그 幅을 더 넓혀서 傳統建築樣式은 現代感覺에 맞는 構造 및 樣式으로의 發展의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研究結果는 學術發表會 또는 講習會 및 圖書等을 通하여 모든 建築人들에게 普及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與件下에서의 研究”를 벗어나기 爲해서는 建築三團體의 相互協助와 政府의 積極인 支援에 期待하는바 크다 하겠다.

넷째 : 우리의 건축을 알아야 하는것은 建築士의 資格을 決定하는 基本的인 尺度로……

大學에서 우리의 古典建築을 깊이있게 배우지도 않았고 建築活動의 舞臺에서도 우리建築에 對한 要求나 關心이 없었으므로 (勿論 全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大部分의 建築人들은 우리의 建築이 어떤것이였는지 잘 모르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으로 아예 패개친 상태이며 더욱이 建築士의 資格試驗에서도 우리 建築에 關한 知識을 묻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하였다.

그러므 建築士는 現代建築設計士(?)가 되어 버렸고 文化財의 復元設計를 하는 設計士는 文化公報部가 別途로 그 資格을 認定하는 制度가 생기게 된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딘가에 큰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是正하기 爲하여 너무 뒤늦게 韓國古典建築에 對한 工夫를 強要하는 強制的 方法이기는 하지만 韓國建築을 하나의 獨立된 建築士試驗科目 (아니면 2分の 1科目)으로 하는 制度的 改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韓國古典建築의 美的 價值는 다들 높이 評價 하면서도 構造的 短点이 있으며 機能面에서 現代感覺에 不適合하기 때문에 韓國建築을 傍觀 내지는 放置한채 西歐의 建築文化를 받아들이는데만 吸吸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燦爛했던 우리의 建築文化를 先進西歐의 것에 앞서먼저 理解하고 研究함으로써 오늘의 훌륭한 建築遺産을 後代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